The Mæssage

("The Message" by Eugene Peterson의 허계영 번역 version)

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

1 장

1-3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 갇힌 나, 바울은 이곳에서 내 형제 디모데와 함께 지내고 있다네. 난 지금 내 절친이자, 이 사역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우리 자매 압비아, 진정한 용사인 아킵보, 그리고 자네 집에서 모이는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네.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그대를 채워 주시기를!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대에게 임하기를!

4-7 내 기도에 자네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, 난 "오, 하나님, 감사합니다!"라고 외치곤 한다네. 자네가 주 예수님을 위해 베푸는 사랑과 믿음의 선행들이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차고 넘친다는 소문이 계속 들려오기 때문이지. 우리가 공유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선행들로 계속 드러날 수 있기를, 그로 인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밖에 없기를 난 기도하고 있다네. 친구여, 자네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기쁜지 자네는 정말 상상도 못할 걸세. 게다가 자네가 동료 크리스천들에게 얼마나 환대를 베풀고 있는지 소문을 듣고, 내 기쁨이 '따따블'이 되는구먼.

노예를 친구로 받아들임

8-9 이런 맥락에서, 내가 자네에게 특별히 부탁할 것이 있다네. 그리스도의 대사(大使)로서, 그리고 지금은 그분을 위해 감옥에 갇힌 자로서,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이걸 자네에게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, 난 자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다네.

10-14 여기 이 감옥에서 내가 아들 하나를 낳았다네. (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, 설마 이걸 곧이 곧대로 믿는 건 아니겠지?^^) 내 아들이 누구냐고? 바로 이 편지를 자네에게 전해줄

오네시모일세! 전에는 오네시모가 자네에게 쓸모없는 존재였겠지만, 지금은 우리 둘 다에게 매우 유익한 인물이 되었다네. 내가 오네시모를 자네에게 돌려보내는 것은, 사실 내 오른 팔을 잘라내는 느낌이야. 내가 이렇게 '메시지'를 위해 수감되어 있는 동안, 최악의 경우, 자넬 대신해서 오네시모가 날 돕게 하려고, 그를 내 곁에 데리고 있고 싶었던 게 사실이지. 하지만 난 자네 모르게 뒤에서 일을 꾸미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았지. 자네가 기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, 제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자네가 억지로 하게 하고 싶지 않았단 말일세.

15-16 자네가 잠깐이나마 오네시모를 잃었던 게 오히려 잘 된 일인 듯 하구먼. 이제 오네시모를 영원히 다시 돌려받게 되었으니 말일세. 그것도 더 이상 노예가 아닌, '진정한 크리스천 형제'로 말일세! 오네시모는 내게 바로 그런, '진정한 크리스천 형제'였다네. 하물며 자네에겐 그 이상이 되어 줄 거라고 믿네.

17-20 그러니 자네가 아직도 날 동지로 여긴다면, 날 환영해 주듯, 오네시모를 환영해 주기 바라네. 만약 오네시모가 자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무슨 빚을 졌다면, 내 장부에 기록해 두게. 여기 내 친필 싸인—'바울'이라는—과 나 자신이 그 증거이자 보증인임을 믿어주게. (자네가 내게 생명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, 이 자리에서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구먼…. 허허) 친구여, 부디 이 큰 부탁을 꼭 좀 들어주게. 자네는 그리스도를 위해 이 일을 하겠지만, 이 일은 결국 내 마음도 기쁘게 해 주는 것이라네.

21-22 난 자네가 이 일을 꼭 해 줄 사람이란 걸 알고 있네. 자네는 아마도 내가 쓴 내용 이상으로 잘 해 줄 게야, 그렇지? 그건 그렇고, 내 방 하나만 마련해 줄 수 있겠나? 자네들 기도 덕에, 내가 다시 한 번 자네들 손님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네.

23-25 내 '감옥 룸메이트'인 에바브라가 그리스도로 인해 자네에게 안부를 전한다는구먼. 또 내 동역자인 마가, 아리스다고, 데마, 그리고 누가도 안부 전해달라고 하네. 예수 그리스도, 우리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것을 받아 누리시길~!